

영적전쟁에 동참하신 동역자님께!

요즘 세계적으로 폭염, 태풍, 홍수, 가뭄, 그리고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참으로 작고도 작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역 확대와 확장을 위해 정신없이 보내는 일상을 접하노라면 인생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교지에서 31년차를 보내고 있는 저로서는 처음 선교지로 출발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각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닥치는 환경은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 집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의 이름이 고국에서 잊혀져가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원가가 숨어 있습니다. 해가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후원교회와 선교지의 선교사에게서도 점점 잊혀져가는 것이 비록 나이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져가는 제일 큰 적은 아마 건강이 점점 쇠약해 감으로 오는 선교사 자신의 영역 축소와 한계, 그리고 거기서 오는 좌절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이겨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간 학교 사역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현장을 지키며 일궈보기 위해 몸부림 쳤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어려움에 직면 했을 때, 오는 충격을 소화하기가 제일 힘든 일 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더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의 귀중함을 늘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세밀하신 간섭하심 앞에 놀라며 바로 이 사실이 학교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추스리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사실 지난 학기로 학교 사역을 접어야겠다는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학교 계약 기간이 4년 남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상의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학교 사역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람을 키우는 어린이 사역의 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 도움을 주는 자보다 도움 받고 자하는 열망은 운영자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국제학교가 돈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정규적인 후원자가 없이 주는 일에만 중점을 둘 수 없었고,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은 동역 자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결과가 현실로 찾아왔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호화로운 고민! 그냥 쉽게 이 학교를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아픔은 방콕은혜국제학교를 근거로 하여 시작한 주변의 현지 아이들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역팀들이 매주 토요일 골목에서 만나고 있는 5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학교와 태국주일학교연구원 이름으로 저들을 찾아 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었는데 학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도 이 생각이 제 마음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접겠다는 결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운영은 현실입니다. 당장 꾸려가야만 하는 학교의 예산은 뻥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저는 이번 9월 미국과 한국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해답이 찾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CDP 아이들 캠프 마지막 날 3명의 아이가 나와서 구원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

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복음이 저들 가슴에 떨어지니 저런 멋진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아버지! 길을 열어주소서.”하며 기도했습니다. 학교의 학생 감소로 현재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여! 방콕은혜국제학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저는 오늘도 태국의 어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계속 아이들을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비록 육신은 처음보다 많이 약해져 가지만, 오늘까지 함께 일할 일군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어린이 사역을 통한 태국 복음화를 멈추지 않고 달려오게 하심같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주의 소유 삼으시고 명하사 이곳에 심으시고 빛으시며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계속하여 이일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제목

1. 방콕은혜국제학교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운영할 운영자와 후원자를 보내주소서.
유치원 활성화, 음악 및 미술 교사를 보내주소서.
2. 방콕은혜교회에 부흥을 주소서(한인, 태국인교회), 그리고 영어 예배 부활을 위해 담당자를 보내주소서,
3. 토요일목주일학교 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
4. 태국주일학교연구원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1) 교사대학, 2) 어린이 캠프, 3) 청소년 캠프
5. CDP(어린이 개발 프로그램)를 통하여 계속 사람 키우기...
6. 방콕은혜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람캄행 은혜유아원 사역, 람캄행 은혜교회의 자립을 위해
7. [어?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집중 세미나(2019.1.7-10일, 방콕은혜국제학교)와 [어? 성경이 읽어지네!]와 성경방 워복의 출판 비용이 채워지게 하소서.
8. 찬양집 발간(찬송, 율동 및 경배 찬양 500여곡, 2,000부)을 위한 출판기금이 채워주소서.
9. 9월 4-10월 2일까지 미국(워싱턴(4-10일), 리버티대학교(5-6일), 뉴욕(11-24일)), 한국(건강 검진 25-10월 2일)방문을 통해 선교의 동역자와 후원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10.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11. 람캄행 39 교육 센터를 위해 일할 사람과 후원자를 보내주소서.

2018년 8월 30일

방콕은혜동산에서 정석천, 신병연, 정주리, 정태은 드립니다.

연락처 : 카톡 ID :silajung,

아래에 접속하시면 자료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Facebook.com/silajung>, www.grace.ac.th